

“이단 대처 위해 성경과 바른 교리 정확히 가르쳐야”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학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와 한국기독교학원이 최근 서울신대 존도 마스홀에서 ‘한국교회와 이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은선 박사(안양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학술대회에는 발표와 논평, 그리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체계·실제적 이단 퇴치운동 전개해야”

본격 발표에 앞서 정상운 박사(한국기독교학원 원장, 성경대 명예총장)가 개회사를 전했다. 정 박사는 “그 동안 많이 성장한 한국교회 못지 않게 이단사이비도 공존하고 있다”며 “그들은 지금도 고고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적극적 포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박사는 “한국교회에 이단에 대한 위기의식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며 “교파와 교단을 넘어 서로 힘을 합쳐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이단 퇴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이단에 대처할 한국교회 연합 전문기관의 설립과 신학자 및 신학교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평신도를 대상으로 이단강화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단, 육체 아닌 영원한 생명 훼손”

이후 발표에서 목장교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는 “정통 교회가 성장 문화와 정체를 겪는 동안, 물론교·여호와의 증인·선전지 등 이단 종파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물론교가



한국기독교학원 원장인 정상운 박사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1830년 6명에서 출발해 현재 1,7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사례와, 국내에서도 하 나님의교회와 선전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현상을 언급하며 “이단 팽창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정통 신앙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목 박사는 또 이단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늘날 일부에서는 이단을 신학적 회생양으로 보고, 정통 교회를 권력의 산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통에 대한 권위주의적 거부감이 이단을 오히려 해방적 대안으로 미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단에 대처한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지는 흐름까지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목 박사는 “이단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내부에서 신앙을 침식한다”며, 기독교가 이단에 단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단 신앙의 특징으로 스탄지 특정한 때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 △기독교의 본질적 정체성과 상충하는 가르침, 이로 인한 기독교 신앙에 파괴적 영향 △새로운 교리 주장 △극단적 신앙을 꼽았다.

목 박사는 또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교



패널 발표자들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일 경우 오히려 이단이 발생하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통의 화석화가 이단을 자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켈리의 연구를 인용해 “전통을 유지하려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다시 진술하는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단은 ‘메시지 자체를 바꾸는 변혁의 길’을 걷기 때문에 성경과 충돌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분석했다.

다만 목 박사는 이단 판정의 신중함도 강조했다. 그는 교리사적 관점에서 이단을 규정하는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예반스, 곤잘레스, 페리칸 같은 교회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정통과 이단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았고, 선험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모두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 ‘모든 오류가 곧 이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이단 판결이 정치 이해관계와 교권 방어에서 비롯된 사례도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사도적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이단에 단호해야 하지만,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교회사 연구를 통해 과거의 논쟁을 살피는 것이 이단의 실체를 이해하고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

라고 결론지었다.

◆“성경 근거한 사도적 바른 가르침을”

이어 ‘이단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을 고찰한 이승구 박사(한신대 남송 석좌교수)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과 바른 성경적 교리를 정확히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성도들이 성경과 바른 성경적 교리에 익숙하게 되면 주변에 이단적 가르침이 나타났을 때 최소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과거의 전형적 이단들과 현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이단들 자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것인지를 잘 드러내야 한다”며 “목회자는 이단들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을 성도에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이단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순결하고 순전한 교회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갈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사도적인 바른 가르침을 전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개인과 세상이 살아날 것”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한국기독교학원 공동학술대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라고 강조했다.

◆이단 대처의 딜레마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는 구체적인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역사와 최근 이단 동향 및 대처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단 대처에 있어 느끼게 되는 ‘딜레마’를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양의 옷을 입고 합법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는 이단들의 광폭 행보를 저지할 만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신선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비성경적 이단인 것은 분명하나, 현실과 거리 청소 등의 이타적인 모습으로 포장된 이들에 대처하려면,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로 인해 사회적 비난에 노출된 교회의 모습이 떠올라 왠지 꺼림칙하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에 ‘사전 예방’ 기능을 가진 교회의 무기력한 이단 대처 현실이 아쉽다”고 했다.

◆“이단 규정 못지않게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 교육에 집중해야”

끝으로 종합논평에 나선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단문제를 공정하게 다루며, 건전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4가지로 정리해 제안했다.

①이단논쟁은 교리에 관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현재 세계기독교를 근본부터 흐든 것은 바로 기독교 내부에서

나오는 자유주의신학 ③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단문제 연구 ④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인가를 분명히 하고 기독교가 용인할 수 있는 범주 마련

박 박사는 “수많은 이단의 등장은 교회가 건전한 신학교육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이단을 규정하는 일 못지않게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가 사라지고,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박응규 박사(총무, 아신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드린 개회 예배에선 이용호 박사(서울신대 부총장)가 기도했고,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후 황덕형 박사(서울신대 총장)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전 1:8-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합심기도 순서에선 안명준 박사(평택대 명예교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가 ‘한국교회와 동상에 확산 저지를 위해, 이광희 박사(평택대 명예교수)가 ‘서울신학대를 위해, 이영주 박사(전 칼빈대 교수)가 ‘한국기독교학원원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오덕교 박사(햇빛트리네트 신학대학원대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진영 기자

현대약품 앞 제6차 ‘먹는 낙태약 수입 저지’ 규탄집회 열려

생명운동연합·태어연, 낙태약 위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현대약품의 먹는 낙태약 수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학계·청년 단체들이 최근 서울 강남구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제6차 규탄집회를 열고, 회사 측의 즉각적 철회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생명운동연합(대표 김갑수 목사)과 태

어연(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이 공동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의학 전문가, 생명윤리학자, 대학생 대표 등이 참여해 낙태약물의 위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집회에는 제양규 교수(태어연 운영위

원장), 인천가톨릭대학교 김경아 교수(프로라이프 대학생회 지도교수), 인천가톨릭대학교 프로라이프대학생회 청년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낙태약물의 의학·사회적 위험성과 생명윤리적 쟁점을 제기하고, 청년 세대와 학계가 바라보는 생명 가치 회복의 필요성을 전했다.

현장에서 카일생명존중운동대(대표 오연

희)은 특별 퍼포먼스를 통해 낙태약물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오연희 대표는 기업 이념과 생명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약품에 낙태약물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오 대표는 “현대약품이 말하는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에는 낙태약으로 고통받을 여성과 약물로 생명을 잃게



‘먹는 낙태약 수입 저지’ 규탄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생명운동연합

되는 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면 수입 추진을 즉

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운동연합과 태어연은 먹는 낙태약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출혈, 패혈증, 자궁손상, 불완전 낙태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충분한 안전망 없이 수입사용이 논의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두 단체는 현대약품이 수입 추진 철회를 명확히 밝힐 때까지 매주 동일 장소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또 법적·정책적 대응과 연대 활동을 확대, 태아 생명 보호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2025-2026
강원 방문이 해
VISION 2035
철원
CheorWon

1억년,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협곡
다채로운 바위 순담계곡 절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아찔한 잔도

햇빛전망대

변화의 중심
다시 뛰는 철원

구미시청 원형화단, 성탄 앞두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불 밝혀

점등식 통해 시민에게 새해 희망과 기대 전한 구미시

경북 구미시청 원형화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따뜻한 불빛으로 물들었다. 구미시는 김장호 시장과 박교상 구미시의회의장, 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마영건 목사, 그리고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매년 연말이면 열리는 점등식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높이 10m, 폭 16m 규모로 조성돼 원형화단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트리는 매일 일몰과 함께 불을 밝혀며 오후 11시까지 점등된다. 구미시는 내년 1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트리가 겨울철 도심 야경의 중

심이 되어 시민과 방문객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트리 점등식에 대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시민과 나누고, 새해를 앞두고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연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함께 자리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점등식에서 김장호 시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함께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새해를 맞아 시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했다.

구미시청 원형화단의 대형 크리스마스



경북 구미시청 원형화단에 불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 ©구미시

트리는 도심 곳곳을 밝히는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하며, 겨울철 구미를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정취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김해에 펼쳐질 겨울의 빛, 제12회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대형트리·세계음식 체험·다국적 공연으로 다문화도시 김해의 연말을 밝힐 예정



제12회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가 오는 12월 6일부터 27일까지 김해시민의 종과 분성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김해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김해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김해가 가진 다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김해시민의 종 주변에는 대형트리가 설치돼 겨울 도시를 밝히고, 분성광장에는 각 나라를 테마로 꾸민 트리 와 조명 장식이 설치돼 한층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각국의 문화적 색채를 반영한 조형물과 조명들은 방문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첫날에는 캄보디아, 네팔 등 8개국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의상 행진이 분성광장에서 시작되며, 이어 점등식과 더불어 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음악과 춤으로 축제의 문을 열 예정이다. 다국적 공연팀의 무대는 올해도 김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부대행사로 마련되는 세계음식 체험 부스에서는 베트남, 몽골 등 5개국의 이색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김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분성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해시 관계자는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도시로서의 김해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열리는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는 다문화 감성과 겨울의 따뜻함을 결합한 김해의 대표 연말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승연 기자

동두천시, 교회 중심으로 의료취약층 찾아간다

교회 공간 활용해
지역 어르신 진료 지원

동두천시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닥터GO’ 이동병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동두천 동성교회(담임 양영주 목사)에서 의료취약계층 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이동병원은 동성교회 인근 지역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내과 전문의 진료, 치과 검사, 상담 및 처방, 간단한 약 조제, 등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건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검진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다리가 불

편해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수요예배를 보러 왔다가 그동안 걱정되던 건강 문제를 바로 상담할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현장을 찾은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는 지난해부터 닥터GO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닥터GO’ 사업은 신체적·경제적·지리적 문제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무료 이동건강검진 프로그램이다. 동두천시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해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백선영 기자



동두천시 ‘닥터GO’ 이동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을 상담하고 있다. ©동두천시

마포구·교구협의회, 홍대 레드로드 ‘빛거리 점등식’ 2일 연다

신덕교회·애능중앙교회 등 참여… 음악과 빛 어우러진 밤 연출
마술 공연·찬양·합창 이어지는 구간별 점등식… 연말 분위기 더해

마포구가 연말을 맞아 홍대 레드로드를 빛으로 물들인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마포구교구협의회(회장 김양태 목사)와 함께, 오는 2일 ‘빛거리 점등식 in 레드로드’를 열고 각 구간별로 대규모 조명과 빛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레드로드’는 홍대입구역 경의선숲길에



서 당인리발전소를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R1-R10) 관광특화 거리이다. 이번 ‘빛거리’가 열리는 R1부터 R5까지 수목 조명과 다양한 형태의 빛 조형물을 배치해, 지역 주민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겨울철 마포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오후 6시 30분 화려한 마술 무대로 문을 연다. 이어 7시부터는 ▲빛거리 소개 ▲박강수 구청장 인사말 ▲내빈 축사 ▲김양태 교구협의회장의 축사와 기

도 순서가 진행된다.

점등식 이후에는 신덕교회(담임 김양태 목사)의 찬양 무대와 애능중앙교회(위임 장찬호 목사)의 트럼펫·성가대 공연이 이어지며, 참여자들은 카운트다운과 함께 레드로드에 첫 불을 밝힌다.

R2 구간에서는 신덕교회의 색소폰 연주와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의 독창 무대가 마련되고, R2 빛거리 점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R4에서는 사진교회(담임 백철호 목사)의 색소폰 연주 후 빛이 켜진다. 마지막 R5에서는 한국기독교남성합창단(단장 여익환)과 성현교회(담임 조보섭 목사)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이 마련된다. 백선영 기자

월드뷰티핸즈·엘드림노인대학, 민들레 토크쇼 개최

독거노인 및 쪽방촌 거주 어르신을 섬기는 소셜서비스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와 무료급식 사단법인 해돋는마음(이사장 장현일 신생명나무교회 목사)이 최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민들레 토크쇼 첫 강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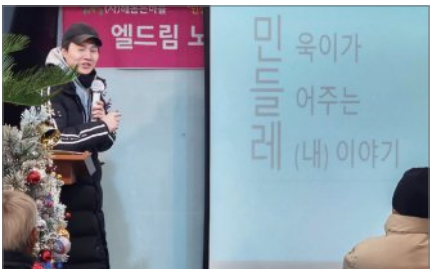
민들레(민욱이가 들어주는 내 이야기) 토크쇼는 상담학을 전공한 장민욱 사무총장(신생명나무교회 전도사)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신실한 ‘고독생프로젝트’의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서 독거노인 및 쪽방촌 거주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64%에 달하는 지역사

회(대흥동)에서 가장 고독하고 사회와 단절된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 내면의 희노애락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참여형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단법인 월드뷰티핸즈, 사단법인 해돋는마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대흥동주민센터, 그리고 대흥동교동협의회가 지난 2022년부터 함께 준비하고 있다.

광복 연령이 80세가 넘는 엘드림노인대학은 우울증과 치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 사각지대 현장에서 생명지킴이



장민욱 사무총장이 민들레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해돋는마음

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실천적 교육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등 다양한 의사표현 기법을 경험하고 발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한인타운 문화 쉼터, 46개의 벽을 허물고 ‘빛’을 들이다

전시와 휴식을 잇는 감각적 카페 공간 ‘Cafe du Gallery’

LA 한인타운 크렌쇼(Crenshaw)길과 올림픽 대로와 피코 대로 사이, 과거 46개의 방으로 쪼개져 어둡고 밀폐되어 있던 노래방 건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햇살이 쏟아지는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림이 걸리고, 음악이 흐르며, 커피 향이 감도는 곳 유니스 김 관장(LA 마라클 교회 권사)이 이끄는 ‘E.K. 갤러리’의 이야기다.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한인 커뮤니티에 문화 쉼터를 제공하고 싶다는 유니스 김 관장을 만나, 이 공간에 얹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은퇴 후 마주한 우연한 소명, “돈보 다 나눔이 먼저”

유니스 김 관장은 지열한 패션계에서 수십 년을 보낸 디자이너였다. 1년 뒤 유행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숨 가쁜 삶에 지쳐 은퇴를 결심했을 무렵,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나눔’이었다.

“중앙일보와 함께 노숙자를 돕기 위한 자선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런데 타운 내에 마땅한 전시장을 찾을 수가 없던 군요. 대관료는 터무니없이 비쌌고요. 비싼 렌트비를 내고 나면 정작 어려운 이웃은 어떻게 돕나 싶었죠.”

그때 지금의 장소를 만났다. 원래는 답답한 칸막이로 가득 찬 유흥업소였지만, 김 관장은 과감하게 모든 벽을 허물었다. 46개의 방을 뜯어내고 벽을 뚫어 창을 내자, 건물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이곳을 돈 없는 작가들도 꿈을 펼치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갤러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무대”

EK 갤러리는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의 연속함 대신 열린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김 관장은 이곳을 ‘다목적 커뮤니티 타운’

이라 정의한다.

높은 천장과 오픈형 구조의 1층 이벤트 홀은 각 행사의 특성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다. 음향과 조명, 벽 한면을 차지한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대형 작품 전시는 물론, 젊은 연극인들의 무대, 패션쇼 런웨이, 결혼식과 파티, 기업 세미나, 지역 사회를 위한 의료 세미나를 위한 장소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약기를 갖 배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연습할 곳 없는 밴드, 무대가 필요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명석을 깔아주고 싶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대관료를 받지 않,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단체엔 기꺼이 무료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감각적인 ‘Cafe du Gallery’

갤러리를 둘러보다 출출해지면 바로 옆 ‘Cafe du Gallery’로 발길을 돌리면 된다.

메뉴에는 패션 디자이너 시절 유럽 출장을 다니며 맛본 미식 경험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프랑스식 ‘크레페(Crepe)’와 명란을 듬뿍 넣은 ‘명란 파스타’, 그리고 그가 직접 개발한 건강식 ‘레인보우 샌드위치’는 이곳의 시그니처다. 고구마와 아보카도 등 건강한 재료로 채운 샌드위치는 특히 외국인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시회 왔다가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소풍 온 것처럼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으며 수도다 떨고, 그림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를 즐기는 삶, 한인타운의 레벨을 높인다”

김 관장은 15년 경력의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패션 비즈니스를 하면서 출장이 잦았던 그는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기억을 기록하듯 셔터를 눌렀다. 별단



E.K. 아트 갤러리, ©E.K. 아트 갤러리, ©갤러리 측 제공



유니스 김 관장, ©갤러리 측 제공



EK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우리(Woori: United by Art)’ 그룹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13명의 다양한 인종 작가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되는 주제를 다뤘다. ©갤러리 측 제공



E.K 갤러리 전속 작가 폴 아트 리 목사의 작품. 아래는 아트샵과 Cafe du Gallery. ©갤러리 측 제공

이 쌓여있는 농촌 풍경부터 요세미티의 빛 내림까지, 풍경을 기록해온 그는 이제 그 시선을 지역 커뮤니티의 성장으로 돌리고 있다.

또, 한인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구상 중이다. 여성들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문화를 즐기고 교류하며 사회화 역량을 나누는 꿈꾼다.

그는 한 사람의 삶을 갈무리하는 ‘장례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EK 갤러리 이벤트홀에서 진행된 타인종 커뮤니티의 행사를 지켜보며 얻은 깨달음이다.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검은 옷을 입고, 엄숙하고, 슬퍼해야만 효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열리는 미국인이나 타 인종의 장례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영상을 틀어놓고 생전의 모습을 추억하며, 밴드를 불러 춤을 추고 파티를 엮습니다.”

처음엔 그도 “장례식장에서 춤을?”이라며 의아해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남은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다.

“검은 옷 대신 밝은 옷을 입고, 통곡 대신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즐기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메모리얼(Memorial)’이더군요.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는 ‘메모리얼 파티’. 우리 한인들도 장례 문화를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인트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개최

세인트미션대학교(총장 박상원 박사)가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에 뉴욕 홀리싱 소재 GLF센터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차요한(호준) 목사에게 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차요한牧사는 세인트 미션대학교 학점교류에 의해 박사과정 이수 학점을 취득했고 박사학위 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사도 요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사건사에 대한 역사

적 연구(A Historical Study of Christian Events from the Birth of Jesus to the Death of the Apostle John)’이 심사과정으로 통과되어 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제1부 박사학위수여식은 케빈 최 목사(뉴욕 충청향우회 회장)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찬양사역자 김영환 전도사의 특송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와 개회기도’로 시작했다. 박상원 총장은 차요한 목사

에게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이어 한국에 유엔 공용어추진연합 뉴욕지부장 김순상 권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원 총장은 “세인트 미션대학교 신학박사로 학위를 취득한 차요한 목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1911년 9월 3일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뉴욕 엘리스 아일랜드 뉴욕에 도착했을 때 한인들이 있

었으며 그 당시 우리 한민족도 나라가 없었고 유대인들도 나라 없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막강한 힘을 구축했으나 우리 미주한인들은 여러 면에서 분발해야 할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미주한인의 이민역사가 4세대로 이어지는 현재 한인 차세대는 정체성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말하고 쓸 줄 알아야 함에도 너무나 많은 후손들이 우리 말과 글로 소통하지 못함을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한국어 유엔 공용어 채택을 뉴욕본부에서 이뤄야 하기에 미주한인들이 앞장서 단결해야 한

다”라고 환영사를 했다.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차요한 목사가 감사했고 최은종 목사, 송병기 목사, 이희선 목사가 짧은 축사로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은혜로 학위수여식을 기쁘게 했다. 제2부 감사예배는 케빈 최 목사 사회와 목도로 시작했으며 주세연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다. 성경 봉독은 이희선 목사가 ‘디모데 후서 3:12-17’을 한글과 영어로 봉독했다. 찬양사역자 김영환 전도사가 ‘주 기도문(The Lord’s Prayer)’을 특송했고 송병기 목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은종 목사의



왼쪽은 박상원 총장, 오른쪽은 차요한 목사. ©학교 측 제공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제3부는 만찬으로 송병기 목사가 식기도했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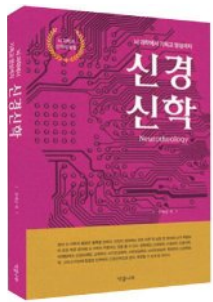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복음주의 신앙과 영성을 뇌과학과 연결한 국내 최초 ‘신경신학’ 발간

지난 29일 새영 손매남 박사
저서 ‘신경신학’ 출판기념
감사에배 드려



한국 뇌치유상
담학 분야의 개척
자이자 선구자인
새영 손매남 박사
(코헨대학교 국제
총장·뇌치유상담
학 교수)가 오늘날

대부분 학문 분야
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경과학과 뇌과학
에 복음주의적 신앙과 영성을 융합한 ‘신
경신학(神經神學)’ 분야를 연구한 역할을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3년 전 뇌과학과 목회학을 융합한 ‘신
경 목회학’에 이어 이번엔 360쪽 분량의
‘신경신학(에셀나무)’을 출판한 손 박사는
25년간 뇌과학과 기독교상담학을 접목한
뇌치유상담학 분야에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에 왔으며, 학술 연구와 강의, 방송,
저술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현재
한국상담개발원(KCDI) 원장,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IBPS) 회
장, 한국에니어그램상담학회 회장, 창조
하는교회 담임목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
다. 저서로는 기독교치유상담사리치인 목
회정신병리학 외 10권, 뇌치유상담사리치
인 뇌치유상담학 등 16권, ‘뇌를 알면 행
복이 보인다’ 등 뇌 관련 단행본 7권 등
총 45권의 저서가 있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4층 소망실에서는 한국상담개
발원(KCDI)이 주관, 코헨대학교 국제부
(CUTS, ID)가 주최하고, 국제뇌치유상담
학회(IBPS), 극동방송 등이 후원한 ‘새영
손매남 박사 신경신학 출판기념 감사에
배’가 국내외 목회자, 교수, 제자 및 가족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속에서 진행되었다.

예배는 김장진 박사(코헨대)의 사회로
정성모 박사(KECUA)의 기도, 조미령 박사
(코헨대)의 축하송, 박종연 박사(한국상
담개발원 교수·코헨대 교수)의 성경봉독
후, 코헨대학교 총장 폴 강(Paul Kang,
한국명 강진권) 박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강 총장은 ‘치료하는 광선’(말 4:2)이라
는 주제의 설교에서 “절대적 믿음과 ‘절
대적 순종’이 더해지면 ‘창조적 기적’이 일
어난다. 창조적 기적이라는 말은 시대별,
상황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맞춤



저자 손매남 박사가 인사말을 했다.

형 기적을 주시는 것”이라며 “제가 한국
을 떠나 미국에 간 지 올해로 50주년이
로, 50년간 제가 가르친 모든 신학은 바
로 이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강 총장은 추천사를 통해 “손매남
박사가 펴낸 ‘신경신학’은 기독교의 오랜
영성 전통과 최신 뇌과학을 융합함으로
써 기독교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
는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책은 과학계에서 성경의 권위를 증명
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는 성경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니
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큰 선물
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매남 박사의 제자이자 코헨대 국제
부 교수인 이세나 박사, 한정희 박사는 이
날 손 박사 부부에게 꽃다발을 증정했
고, 국제뇌치유상담학회 사무국장 이은
영 박사(코헨대 국제부 교수)가 저자 약
력 소개를 하고, 손매남 박사가 저자 인
사말을 전했다.

손 박사는 “인류의 역사는 과학과 기
술, 종교와 영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과학도, 종교도 뇌가
접목돼야 하는 뇌의 시대에 와 있다. 종교
와 뇌가 연결되면 뇌종교학, 신경신학이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신경과학
자 앤드류 뉴버그(Andrew Newberg)의
신경신학의 학문적 배경과 실험은 참으
하되, 복음주의적 신앙과 영성을 융합하
여 이 책을 쓰게 되었다”며 “일반종교가
아닌 기독교 복음주의적 신앙과 영성을
뇌과학과 연결하는 학제적, 융합적 연구
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무엇보다도 “신경신학은 △
뇌 건강 및 뇌 치유의 관점에서 인간 이해
탐구 △종교와 영성의 입장에서 인간의
상태 탐구 △과학과 종교의 상관성에 대
해 탐구 △종교 및 영적 수행을 통한 뇌
의 변화 연구 △인간의 뇌가 믿음, 예배,
기도, 영적 수행, 신앙에 미치는 영향 탐



출판기념 감사에배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구 영역적 체험 또는 신비주의적 체험에
서 일어나는 뇌의 특성 탐구 △예배와 예
전, 기도와 신앙에 관련된 뇌 체계 및 구
조 사이를 탐구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 책은 기독교 신앙 및 신학의 타당성
과 진리 주장을 강화시키는 공헌과 기여
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확히 80세를 맞
은 11월에 책 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참석자들의 절대
적인 기도와 배려와 사랑을 당부했다.

이날 서평은 김성영 박사(전 성결대 총
장, 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과 노영
상 박사(실천신학대학원 직전 총장, 전
호남신학대 총장)가 맡았다. 김성영 박사
는 ‘신경과학에 세례를 주는 신경신학’이
라는 제목의 서평에서 “뇌치유상담으로
현대인의 육체와 정신, 영혼의 질병 치유
에 일생을 바쳐 오신 손매남 박사의 필생
의 대작을 펴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리
다”라며 “이 책은 신경신학 분야의 저서
로 사실상 최초의 작품이고, 신학이 융합
차원에서 여러 인접 학문과 만남을 시도
하는 가운데 가장 생산적인 성과를 거둔
작품이며, 신학회의론과 신학무용론이 대
두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 속에서 신학이
신경과학의 한계 극복에 기여하는 길을
열었다”라고 높이 평했다.

노영상 박사는 “신경을 중심으로 한 과
학의학과 신학의 만남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연구로서, 이 두 학문의 융
합을 통해 성경과 인간을 이해하는 데 더
진전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또 “손 총장님은 신경신학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처음에는 미국의
신경신학자 앤드류 뉴버그의 책 ‘신경신
학(Neurotheology, 2018)’을 번역했으나,
책 내용이 한국 신학계에 적절하지 않음
을 알고 그 책의 출판을 접고 본 책을 집
필하게 되었는데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며 “이 책의 출간으로 이 분야 연구가 더
욱 진작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

서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인간이 가지는
신앙의 힘을 더 잘 설명해 줄 것이라 확
신하며, 신경신학에 대한 관심이 오늘까
지도 상당 부분 비밀에 부쳐진 하나님 말
씀의 영적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
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원
장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극동방송재단 사무총장 한기봉 장로가
전했다. 정성구 박사는 “교의신학은 실천
신학과 연결이 안 되면 죽은 신학이다. 또
학문적이고 논리적, 체계적인 신학도 중
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현장과 부딪칠 때
그 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와 관련된 응
용신학이 있는데, 신경신학은 응용신학
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
사는 이어 “손 박님의 창조하는교회라
는 이름과 같이 남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는 작가로서 새로운 도전적인 책, ‘신경
신학’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하리다”고
덧붙였다.

한기봉 장로는 “손 박님은 늘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에
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새로운 분야를 개
척하는 분으로, 제가 존경하여 30년을 합
께 왔다”며 “더욱더 건강하셔서 신학자
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어주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어 한국
상담개발원 본부장 이희순 박사(한국상
담개발원 교수·코헨대 교수)가 광고 및 인
사를 전하고, 예정선목총회 총회장 김국
경 박사(선목총회신학교 총장)가 축하도
며 제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는 한국인
성교육상담진흥원 원장 문희강 목사(창
조하는교회 상담목사)의 오찬기도와 기
념촬영, 오찬 교제로 진행됐다.

한편, 손매남 박사는 뇌치유상담의 활
성화를 위해 매월 국제뇌치유상담학회
(IBPS) 회원 중심의 뇌치유상담 월례세미
나를 주도하고 있다(문의 1544-7509)

이지희 기자

선교단상

한국선교의 돌파구 ‘3자 중심의 선교 모델’

‘자립선교’, ‘현지인 중심 선교’,
‘평신도 전문인 중심 선교’ 제안

선교지에서의 사역에 대해 내가 꿈꿔
왔던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자립선교
△현지인 중심 선교 △평신도 전문인 중
심의 선교이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후원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보인다. 더욱이 지난 코로나19 이
후부터 한국교회가 선교의 혁신과 열정
이 예전과는 달라져 현지에서 선교사들
이 스스로 자립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대두된 바 있
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립선교를 모색해
야만 할 때라고 본다.

둘째로, 현지인 중심의 선교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선교사 주도의 선
교에서 현지인 주도의 선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선교계에서
공통적으로 회자되어왔으나, 실제로 실행
해 옮기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
다. 하지만 이제 속히 전환할 때이다.

셋째로, 작금의 선교 환경의 흐름은
목사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제한
됨에 따라 평신도 전문인 중심의 선교
가 대두된 것이 벌써 오래되었다. 더욱
이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의 선교 자원
이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런 자원들을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
하거나 확대해 볼 구상을 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그러나 직접 선교 현장에 와서 볼
때 평신도들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
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상의 자립선교 중
심, 현지인 중심, 평신도 전문인 중심의
‘3자 중심’을 접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해 볼 수 있는 선교 현장을 찾던 중 이
를 발견하고,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
까지 일주일간 현장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곳은 자카르타 근교에 있는, 내가 아
는 K 장로의 농장이었다. 그분은 지금
그곳에서 농산물의 증산을 통한 농업
선교를 일으켜 현지인들의 생활을 보장
해 주는 한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이가 현지 교회를 설립, 장자 현지 사
역자를 세워 마을 주변을 복음화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결국 농장에서의 수익을 통해 ‘자립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
이 K 장로 혼자로는 불가능하므로 한



김영희 목사 등은 자카르타 근교의 농장
을 방문해 일주일간 3자 중심의 선교 사
역을 접목해 보았다. ©김영희 목사 제공

국에서 이러한 농업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전문인’을 파송하여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오래
전부터 선교 훈련을 통해 알고 지낸 L
집사와 K 집사를 한국에서 불러들였다.
이 두 분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개인적으로 특별히 준비해
온 분들이었고, 나와는 평소 애인 일
에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지냈던 분들
이다. 그래서 우리 3인은 그 농장에서 3
자 중심의 선교 사역의 접목을 시도해
보았다. 우리는 현장에서 일 주일간 함
께 살면서 농업선교를 통한 ‘3자 중심의
선교’가 과연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시험해 보았다.

물론 한 번의 만남으로 성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함께 지내면서 앞
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수많은 대화
를 나누었고, 인도네시아 농촌에서의
‘자립선교’를 위해 충분한 가능성을 타
진해 보았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평신
도 전문인’들의 참여와 헌신에 대해서
도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다. 왜냐하면
선교 현지는 그만큼 평신도들의 역할과
참여가 절실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현지인들의 삶’을
개선해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 기대 목표였다. 우리는 잠시
이지만 함께 살면서 이곳에서 장차 이
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감사
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한국선교가 이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그 방법 가운
데 하나로, 나는 이상의 ‘3자 중심의 선
교 모델’을 시도하면서 그 가능성을 모
색해 본 것이다. 한국선교의 미래를 위
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서둘러야 할 때
이고, 기도로 함께해야 할 때라고 본다.

김영희 목사(선교사(KWMA 운영이사, 시
니어선교한국 실행위원, 서울남교회 은퇴
목사)

초연경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리더

BPA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

20th BPA
부산항만공사 창립 21주년

21번째의 도전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1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시작합니다

최첨단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완전 자동화 항만 실현

친환경, 디지털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복합 재개발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 향상

英거리 설교자, 반무슬림 발언 혐의 ‘무죄’… “표현·종교의 자유 보호해야”

영국에서 거리 설교 도중 무슬림을 향해 혐오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설교자가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잉글랜드 남서부 스윈던 크라운코트는 약 6일간의 재판 끝에 36세 설교자 손 오설리번(Shaun O’Sullivan)에 대해, ‘종교적 동기를 가진 의도적 괴롭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설리번은 지난해 9월 15일(이하 현지 시간) 스윈던 시내에서 설교하던 중 무슬림 가족에게 “우리는 유대를 사랑한다”, “유대인 혐오자”, “팔레스타인 지지자들” 등의 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영국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이 밝혔다. 해당 가족은 하잡을 착용하고 있어 자신들이 특정해 공격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당시 신고 전화에서 혐오 범죄

로 분류됐다. 제보자는 신고 과정에서 “아주 불안했다. 우리를 유대인 혐오자, 팔레스타인 지지자라고 불렀다”고 말했으며, 접수 담당자는 추가 증거 없이 “혐오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설리번 측은 크리스천 컨선 산하 ‘기독교 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 변호인단과 함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 가족의 증언에 의존했지만, 발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영상 음성 증거는 없었고, CCTV 역시 조형물에 가려 대부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같은 사건을 증언한 가족들의 진술에서도 마이크 사용 여부, 오설리번의 옷 색상 등이 서로 달랐다고 법정은 밝혔다.

교차 신문 과정에서 주요 증인은 오설리번의 설교 전체를 듣지 않았다고 사인했으며, 자신의 진술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에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증인은 “그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 화가 났다”고도 진술했다.

재판은 가자지구 분쟁과 10월 7일 하마스 공격 1주년을 앞두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스윈던 지역에서는 최근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잦았다.

오설리번 측은 그의 설교가 특정인을 겨냥한 괴롭힘이 아니라, 유럽인권협약(ECHR) 91011조에서 보호하는 ‘종교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거 범죄 생활에서 회심한 뒤 거리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는 마틴 파슨스(Martin Parsons) 신학자가 전문가 증언을 통해 “영국에서 거리 설교는 역사적으로 보호받아 온 종교적 관행이며, 이를 처벌할 경우 종교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 문서에서 이슬람 경전 속



손 오설리번(우)과 그의 변호사 마이클 필립스(좌). ©Christian Concern 제공

반유대주의적 요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설리번의 발언이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 해석에 기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죄 선고 후 오설리번은 “나는 한때

길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꾸셨다.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며,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기독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말

했다.

이번 재판에는 약 2만 파운드(약 3만4천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법률센터 대표 앤드리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는 “이 사건은 증거가 아닌 ‘인식’에 따라 혐오 범죄를 판단하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공적 토론이 침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 통의 신고만으로 혐오 범죄가 성립된 점을 지적하며 “공적 발언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설리번은 지난해에도 글래스턴버리에서 기독교 설교 중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오설리번과 동료 설교자 존 던(John Dunn)의 비용을 국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미경 기자

교회 출석 금지한 양육권 명령에 美메인주 싱글맘 항소

미국 메인주에서 한 싱글맘이 딸을 지역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금지한 하급심 판결에 맞서 항소했다. 법원이 해당 교단을 ‘컬트(cult·사이비 집단)’로 규정하고 아버지에게 종교 활동 결정권을 넘긴 데 따른 조치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에 따르면, 에밀리 빅퍼드(Emily Bickford)는 지난해 12월 메인 지방법원의 양육권 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메인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리버티 카운슬은 현재 빅퍼드의 항소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가 된 명령은 빅퍼드가 12세 딸을 메인주 포틀랜드의 갈보리 채플(Calvary Chapel) 교회에 데려가는 것을 금지하고, 딸의 아버지 매튜 브라딘(Matthew Bradeen)에게 “갈보리 채플 관련 종교 활동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 내용이다.

리버티 카운슬 창립자 매트 스테이버(Mat Staver)는 “갈보리 채플은 컬트가 아니다”라며 “성경 가르침을 이유로 기독교 교회 출석과 성경기독교 문헌 접촉까지 금지한 이번 명령은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명령은 종교 자유에 위협한 선례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빅퍼드 측 변호인단은 하급심 판결이 “종교적 원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항소 문서에 따르면 하급심 법원은 빅퍼드의 신앙을 “컬트적이며 심리적 위해를 준다”고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딸의 종교 교육에 대한 빅퍼드의 기본 권리를 박탈했다.

브라딘은 딸이 다니는 교회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성경을 장벽·절벽로 가르치며 지옥·사탄·영적 전쟁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대 사회학자 얀야 알리치(Janja Lalich)를 전문가 증인으로 선임했다.

알리치는 갈보리 채플을 ‘닫힌 사회 체계’로 규정하며, “모세 모델(Moses model)”을 따라 목회자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하급심 법원은 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이고, 교회 설교가 “혐오적 인사, 동성애 혐오, 과학 거부, 공립학교에 대한 적대”를 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급심 법원은 교회 출석이 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근거



©pixabay

중 하나는 예배 중 목회자가 양육권 소송을 놓고 빅퍼드 모녀에게 기도한 일이었다. 또한 브라딘은 딸이 교회 참석 이후 공황 증세를 보였고, 집에 “휴거가 곧 온다”는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버티 카운슬은 하급심이 “빅퍼드가 신앙 때문에 의료적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신앙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갈보리 채플은 전 세계 수백 개 교회를 가진 복음주의·은사주의 연합체로, 1960년대 척 스미스(Chuck Smith)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다. 그는 ‘예수 운동(Jesus Movement)’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이 운동은 2023년 공개된 영화 ‘Jesus Revolution’의 중심 배경이기도 하다. 이미경 기자

美결혼 감소했지만 ‘결혼 욕구’ 여전 동거·재혼 증가로 가족 형태 변화

미국에서 결혼 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동거, 재혼 증가로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결혼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은 아니라고 바나 연구소(Barna)가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바나가 다년 연구 프로젝트 ‘번영하는 가족 이니셔티브(Flourishing Families Initiative)’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고서 ‘오늘날 가족의 현황(The State of Today’s Family)’에 담겼다. 연구는 전국 여론조사를 토대로 미국 내 관계 및 가정의 다섯 가지 주요 변화와 이에 따른 교회지역사회의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의 46%가 결혼한 상태로, 이는 미 인구조사국의 51%와 비슷한 수치다. 1950년에는 약 3분의 2가 결혼 상태였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세 초반, 여성은 29세로 1950년대보다 약 8년 늦어졌다. 연구진은 이로 인해 “청년기에서 비혼 기간이 잠시 지나가는 단계가 아닌, 긴 삶의 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인의 약 18%가 이혼 경험이 있지만, 그중 55%가 재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현재 이혼 상태인 사람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1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수치는 결혼이 사회적으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결혼 증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교회는 이혼 이후뿐 아니라 재혼 과정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결혼하지 않은 채 연인과 함께 사는 미국 성인은 8%로, 1970년 거의 0%였던 것에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소수에 속한다. 그러나 인식은 달라졌다. 바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58%, 실제 신앙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중 42%가 “결혼 전 동거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변화는 교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보고서는 “사회적 기준과 교회 가르침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동거를 신중한 결정으로 여기는 이들과 어떻게 대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혼과 이혼 관련 기독교인의 경험은 일반 인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신앙인과 비실천적 기독교인의 약 20%, 실천적 기독교인의 16%가 이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재혼율이 다소 높아 전체적으로 “한 번 이상 결혼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타 종교 또는 무신론자보다 높다”고 보고서는 봤다.

미래 세대를 보면 결혼에 대한 태도는 복합적이다. Z세대의 81%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결혼이 자녀 양육에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미혼자 중 78%의 Z세대, 73%의 밀레니얼 세대는 언젠가 결혼하길 원하지만 “가정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의 경우 중년기에 접어들며 결혼률이 상승 중이며, 베이비붐 세대는 이혼 경험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개신교 목회자의 결혼 경험도 조망했다. 미국 성인의 절반만 결혼 상태인 반면 목회자의 약 90%가 현재 결혼했고, 97%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결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혼 경험은 18%로 일반 사회와 비슷하지만, 이들 중 73%가 재혼해 현재 이혼 상태인 목회자는 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오늘날 결혼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지만, 기독교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인이 여전히 결혼을 삶의 중요한 소망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적 정의가 변화하는 시대, 교회가 할 일은 결혼을 수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반영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자원영토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짹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시험 7일 후, 전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기간) 2023.01.25~2023.03.10 (시험대상) 5인 이상 30명 (시험기관) (주)글로벌리뷰연구소센터]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무단 노출… 경찰·정부 동시 조사 착수

소비자 불안 확산 속 “결제정보만 강조하는 대응” 비판
민관합동조사단, 사고 원인·재발 방지 대책 마련 나서

쿠팡에서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과 정부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들은 쿠팡이 “결제정보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보상 대책이나 경위 설명이 부족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쿠팡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고소장에는 특정 피고소인 대신 ‘성명불

상자’가 적시되었으며,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유출 경위 전반을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쿠팡은 지난 18일 4500여 개 계정의 일부 정보가 무단 열람된 사실을 처음 파악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이름·이메일·배송지 주소록 등이 노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쿠팡은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와 비밀번호

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30일 오전 고객들에게 “결제정보는 안전하며 비인가 조취 여부를 당국과 함께 조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대응이 상황의 본질을 흐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 윤모(25)씨는 “사이트에는 공지도 없어 문자 자체가 피상처럼 느껴졌다”며 “정작 유출 피해를 받은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보상이나 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1)씨도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핵심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는데 쿠팡은 ‘결제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이용자 이모(45)씨는 “범죄

악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보들인데도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과 29일 두 차례 쿠팡으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했으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미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호나라’를 통해 긴급 보안공지를 발령했다. 이나래 기자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쿠팡의 사실상 모든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은 고객 계정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쿠팡은 지난 18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발표했는데, 11일 만에 노출 계정이 약 7500배 늘어난 것이다. ©뉴시스

첨단산업 경쟁 격화 속 금산분리 완화 논쟁 재점화

재계 “대규모 투자 위해 규제 유연화 필요”
전문가·공정위 “특혜·경제력 집중 우려, 신중 접근해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해지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재계는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력 중심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대규모 투자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금융자원의 사금고화 우려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의 회동에서 “AI 투자의 규모가 워낙 커 자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독점 폐해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전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관련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제한해 재벌의 금융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산업 부문의 부실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

해 1980년대 도입된 제도다. 특히 SK 등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는 대기업에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재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모든 금융업 소유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는 기업의 투자 능력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지적한다. AI와 반도체 분야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기업의 자기자본이나 차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가 함께 참여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처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협업해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재계는 일반 지주회사가 투자회사(GP)를 설립해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대기업의 축적된 경영 경험과 기술 역량이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되면 혁신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대기업이 금융기관 및 정부 펀드와 함께 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역

시 “CVC를 금산분리로 묶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일부 도입된 CVC 제도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사례이지만, 지주회사의 100% 지분 소유 의무, 외부 투자금 40% 제한, 부채비율 200% 규제 등 제약이 여전히 많아 활용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SK하이닉스 등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지분으로만 보유해야 하는 규제 역시 완화 요구의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제한적인 금산분리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근본 원칙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보조금 중심의 미국식 지원정책은 한국 재정 여건상 현실적이지 않다”며 “재벌 사모펀드가 무리한 사업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면 일부 규제 완화는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규제 때문에 내부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중 접근을 요구하는 시각도 강하다. 산업자본이 펀드를 운용할 경우 금융자원이 사외 추구에 활용될 가능성, 금융회사가 재벌 계열사의 무리한 확장이나 내부 지원에 동원될 우려 등이 그 이유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처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는 규제 유연화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랜 제도를 일부 기업의 요구만으로 바꿀 수는 없다”며 “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은 자체 이익 기반의 R&D와 혁신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도 금융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AI 등 첨단산업 투자에 한정해 한시적 예외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지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몰 조항을 뒤 한시적으로 ‘100%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을 제시했다.

또한 CVC의 외부 자금 조달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해외 투자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기업의 펀드 운용이 사외 편취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AI 같은 전략 산업에 한해 한시적 예외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며 “계열사 자원이거나 부당 자산 이전을 막을 구체적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내년 한국 수출, 미·중 통상 충격에 흔들릴 가능성 확대

전문가들 “편중된 수출 구조가 근본 문제
다변화 없으면 경기 하방압력 커질 것” 진단

내년 한국 수출이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 큰 변동 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발 고율 관세 정책과 마중 갈등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겹치면서 수출 둔화와 중간재 수입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불황형 흑자’ 구조가 반복되며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안 요인을 우리나라 수출 구조의 취약성에서 찾고 있다. 전체 수출의 약 40%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집중된 구조적 편중 탓에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9%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상반기 2.2% 성장을 기록한 뒤 하반기에는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 속에서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 주요국 경기 부양기조 등이 긍정 요인으로 꼽히지만, 세계 경제 전반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수입 역시 중간재 수요 축소로 인해 0.3% 감소가 예상되며, 내

년 무역수지는 약 675억 달러 흑자로 올해 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는 다소 다른 흐름이 제시됐다. KDI는 내수 회복세를 근거로 GDP 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1.8%로 예상하며 수출 증가율 역시 연간 1.3% 수준을 제시했다. 수입도 연간 1.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두 기관 모두 내년 상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에는 공통적으로 경고음을 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대미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산업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일부 인하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 비중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다.

철강은 내년부터 관세 적용이 확대되면서 대미 수출 급감이 예상되며, 일반기계·전 등 전통적인 효자 품목 역시 철강·알루미늄 파생 규제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형 수출 또한 마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액은 각각 1278억 달러, 13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8%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 수출의 40% 가까이가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수출 구조 개편’이 꼽힌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통해 가치사슬 재조정, 전략산업 중심 공급망 구축, 시장·품목 다변화 등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한국 수출은 특정 국가·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며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수출시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아세안·인도·중동·남미·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가 수출 다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심의 교역 구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통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나래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강제로 개종·결혼한 파키스탄 기독교 여성… 가족 “압박과 협박의 결과였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에서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실종된 21세 기독교 여성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후, 가족들은 깊은 충격과 불안 속에 사건의 진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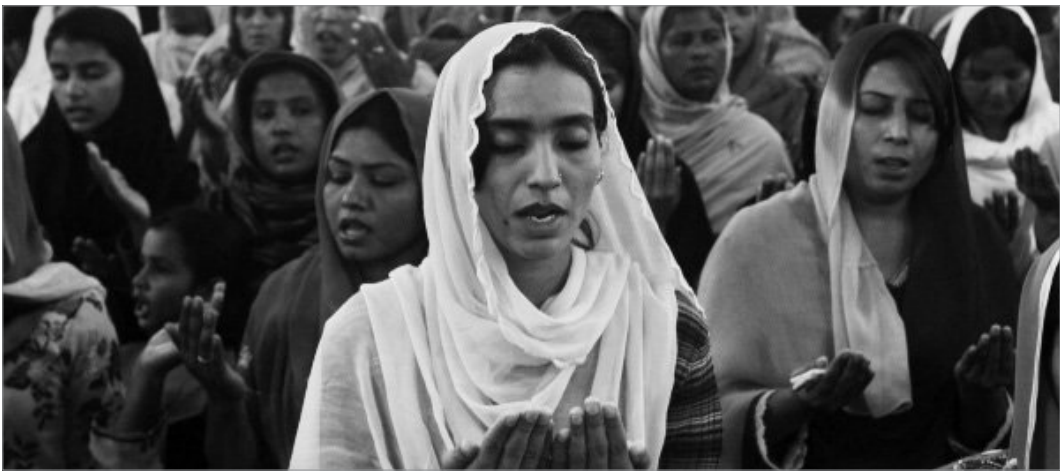
해당 여성인 모나카 제니퍼는 실종 열흘여 만에 법정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이웃 무슬림 남성과 자발적으로 결혼했다고 진술했으나, 가족들은 모든 과정이 강압과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라왈핀디(판자브주)에 거주하는 그녀의 오빠 라자 아리프는 “동생이 강제로 납치됐고, 오랫동안 협박과 조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난 것”이라며 “제니퍼는 믿음이 깊은 기독교인이었다.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종교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아리프에 따르면, 무슬림 이웃 알리드 아흐마드가 그녀를 납치한 뒤 압박과 협박을 지속해 결국 개종·결혼을 강요했다고 한다. 제니퍼가 17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자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다음 날 다시 오라고 했고, 공식 실종 접수(FIR)는 인권단체들이 개입한 이후인 지난 23일에서야 이루어졌다. 그 사이 가해자는 제니퍼의 개종과 결혼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족은 밝혔다.

파키스탄 내 소수종교 인권활동가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고 지연이 파키스탄 사회 전반의 구조적 차별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리프는 동생이 법정에서 “자발적 개종”이라고 말한 것도 철저한 외압 때문이라며, “그 아이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흐마드 측 가족들은 오히려 제니퍼 가족에게 신성모독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결혼을 문제 삼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고령의 부모는 공포에 떨고 있지만, 가족은 끝까지 제니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파키스탄 기독교인(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록일보 DB

가족은 지역 인권단체들과 함께 파키스탄 대법원이 구성한 소수자 보호위원회 ‘원맨 커미션’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건의 실질 수사를 요구했다. 아리프는 제니퍼의 결혼 증서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신랑의 신분증 번호가 누락돼 있고, 결혼 등록관의 서명이 진짜인지도 조사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제니퍼 사건이 파키스탄 내 기독교·힌두 소녀들이 겪는 전형적 강제 결혼·강제 개종 패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한다. 종종 가난한 가정의 10대 소녀들이 갑자기 사라진 뒤, 며칠 후 스스로 개종·결혼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진술이 대부분 협박, 폭력, 세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강제개종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캐서린 샴나는 “소수종교 소녀가 한 번 ‘무슬림이 되었다고’ 선언되면,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은 곧 배교자로 낙인찍히는 일”이라며, “배교는 파키스탄에서 매우 위험한 죄리표이기 때문에 많은 소녀들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강제 결혼 속에 갇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인 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는 “납치범

이 주변에서 감시하거나 심리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녀가 자유롭게 발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많은 피해자들이 배교 혐의가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라호르의 사회정의센터(CSJ)가 발표한 ‘2021년 1월~2024년 12월 인권 관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강제 개종·결혼 사건은 최소 421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282명이 힌두 소녀, 137명이 기독교 소녀, 2명은 시크교 소녀였으며, 71%가 미성년자였다. 이 중 22%는 14세 미만, 49%는 14~18세였다. 성인은 13%에 불과했으며,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16%에 달했다. 사건은 신드주에서 69%, 판자브주에서 30% 발생했다.

아리프는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다. 아이가 위협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만나는 것”이라며 “제니퍼는 가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두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의 96% 이상이 무슬림이며,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2025 세계 감시 목록’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심각한 국가 8위로 선정됐다. 최승연 기자

다음 위대한 부흥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리 맥글로틀린(사진)의 기고 글인 ‘위대한 부흥이 대형 집회에서 시작되지 않는 이유’(Why the next great revival won't start at big gatherings)를 25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제리 맥글로틀린은 헌정 공화국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게스트를 대변하고 유대·기독교 윤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홍보 기관인 스페셜 게스트(Special Guest)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요즘 부흥(revival)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아주사 거리(Azusza Street) 부흥, 웨일즈(Welsh) 부흥, 그리고 18세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대각성(Great Awakening)을 떠올린다. 좀 더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 며칠 또는 몇 주씩 머물렀던 애즈버리(Asbury) 대학 부흥이나, 수많은 신자들이 더 깊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한 토론토 블레싱(Toronto Blessing)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바로 ‘더 큰 영광’(greater glory)이다. 이는 성령의 가장 큰 부요심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예수와 함께 걸었던 사도들이 경험한 기적들보다 더 큰 역사가 앞에 놓여 있다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분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다락방의 경험’을 통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

옛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함을 갈망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마치 만년에 자진 옛 이스라엘처럼 말이다.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외쳤고, 하나님이 매추라기를 보내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늘의 완전한 양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눈앞에 두고도, 일시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이 영적 핑계가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개인적 바람과 다를 때, 우리는 “주님, 당신의 뜻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라고 덧붙인다. 즉, “제가 진짜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라는 의미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분의 뜻은 완전하다. 반면 성경은 말한다: “사람의 마음

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나...” (예레미야 17:9)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세요”라는 말을 도피구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으로 바꾸자: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만, 저는 제 마음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 마음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부분적 편안함이 아니라 완전한 뜻을 구하자. “하나님, 제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소서.” (사편 51:10)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뜻을 원하는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원하는 자리로 이동하게 되고—바로 거기서 부흥이 시작된다.

◆“한 사람의 부흥”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필자는 다음 위대한 부흥은 거대한 스타디움 집회나 바이블 예배 영상에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될 것이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부흥(revival of one)”이다. 한 사람의 부흥이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결단한 신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그 뜻 자체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려운 예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편안함을 시험하는 결혼으로 이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특수 욕구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라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속으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길 바라고 있을까? 이 자질이 바로 부흥의 갈림길이다.

◆부흥의 길

해답은 단순하지만 깊다.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신뢰할 때만 그분께 완전히 순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반영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즉, 감정이 아니라, 정렬(alignment)이다.

◆연합된 부흥

만약 우리가 각각 “한 사람의 부흥”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전 세계 신자들 사이에 어떤 영적 시너지(synergy)가 일어날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 안에서 걷고, 성령의 흐름 속에서 서로 완전한 일치치를 이루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자리 말이다. 다가올 부흥은 우리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부흥이 건물이나 운동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구하자. 우리 개인이 새로워지고, 그다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성령, 한 사명, 한 사랑 안에서 연합되자.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의 부흥’이다. 최승연 기자

자카르타, 도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도시로 부상했다

UN 보고서, 아시아 메가시티 중심의 인구 재편 흐름 드러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일본 도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올라섰다는 유엔(UN) 경제사회국(UNDESA)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25 보고서가 발표했다. 자카르타의 인구는 4190만 명으로 집계돼 1위를 차지했으며, 오랜 기간 정상에 머물렀던 도쿄는 3340만 명으로 3위로 내려갔다.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급성장도

강조했다. 다카는 3660만 명 규모로 2위에 올랐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해수면 상승 때문에 고향을 떠난 주민이 몰리며 인구 증가가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메가시티(인구 1000만 명 이상)는 1975년 8곳에서 올해 33곳으로 늘었다. 이 중 19곳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으며,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9곳이 아시아 도시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자카르타, 다카, 도쿄, 뉴델리, 카이로, 상하이, 광저우, 마닐라, 콜카타, 서울 등이 포함됐다.

자카르타와 다카의 성장 배경으로는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이동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평가

됐다. 자카르타는 2050년 도시의 4분의 1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 중심지로서의 매력에 커 인구 유입과 높은 출생률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급격한 확장은 사회 문제도 키우고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생활비 부담과 도시 불평등이 심화되며 올해 초 저소득층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됐다.

UN은 조사에 적용한 새 도시 기준을 통해 국가별 통계 차이를 줄였다고 했다. 새 기준은 ‘1㎢당 인구 밀도 1500명 이상’과 ‘총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 집적지’를 도시로 규정한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장 해일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할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로 선택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돈기갑)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장애인은 연민의 대상이지 동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

J. D. Kim 교수

덴버 신학교 박사과정
부디렉터 조직신학 교수

이 글은 교회 안에 자주 나타나는 장애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매주 한 가지 오해를 살펴보면 성경과 신학과 목회적 관점에서 성찰하여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비장애 성도들과 함께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장애는 죄에 대한 징벌이다”라는 오해를 다루었습니다

◆오해 2: 장애인은 연민의 대상이지 동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의 삶 속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성경적 관점보다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오해가 장애인을 주로 연민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연민은 선한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연민이 관계의 기본 구조를 이루게 되면 장애인은 함께 신앙을 나누는 동역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때 장애인은 교회와 함께 고난하고, 사역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며,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는 동역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행을 통해 보호

받는 존재로만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장애 아동과 장애 성인을 위한 특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분명 귀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그들을 주일예배, 공동 기도 모임, 신앙 교육, 리더십 훈련과 같은 교회의 신앙 형성의 중심 흐름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했고, 여러 도움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지만, 장애인 성도들은 교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질문과 통찰은 교회의 신학과 사역을 형성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사역은 “누군가를 돕는 부서”로 머물고, 장애인 성도는 교회 구조와 의사결정의 주변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문제는 개인의 태도 이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교회의 기본 구조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동역자”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연민이 중심이 될 때 관계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기울어집니다.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정된 위치를 갖게 되고, 그 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집니다. 돕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와 선택, 신학적 통찰과 삶의 해

석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합니다. 장애인은 사람 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교회의 중요한 논의와 책임에서 비껴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연민이 깊어질수록, 의도와 달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영적 주체성이 약해지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조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복음사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깊은 긍휼을 가지셨지만, 그 긍휼은 늘 관계와 친교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멀리서 바라보며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곁에 앉아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공동체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불러들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상대를 낮은 위치에 고정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동등한 인격으로 마주 보게 하는 관계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 연민은 보이지 않는 거리를 남기지만, 예수님의 연민은 그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하나의 몸으로 묶는 친교를 형성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자비의 수혜자로만 여기는 태도는 결국 교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된 한 몸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약한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장애인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부속적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없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상실하게 되는 필수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동역의 깊은 신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멀리서 바라보며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피곤함과 아픔과 외로움의 경험을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성육신은 연민의 거리에서 동역의 자리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인 예수께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셨다는 사실은, 교회가 서로를 향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위에서 돕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서로를 동등한 형제로, 자매로, 동역자로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비전 안에서 장애인은 교회의 사역이 향해야 할 대상이긴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각 성도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십니다. 장애를 가진 성도 가운데에는 깊이 있는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이도 있고, 관계와 위로의 은사를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을 붙드는 이도 있으며, 고난을 통과하며 얻은 지혜로 공동체의 신학적 분별을 돕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장애인을 돕는 대상으로만 이해할 때, 교회는 단지 사랑을 베풀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은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일을 넘어서, 실제 구조와 기대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사역만 계획하고 있지 않은지, 장애인 성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의와 나눔의 자리에 장애인 성도의 자리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 장애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교회의 방향에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연민은 감정의 차원에 머물 수 있지만, 동역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의 구조입니다. 연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도록 만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역은 서로를 같은 자리에서 세워 주며 상호성을 회복합니다. 연민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동역은 서로 책임을 나누며 함께 짐을 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연민은 순간적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동역은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구조를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함께 동역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 주는 증언이 됩니다. 장애인이 자비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증인과 대화자이자 사역의 동반자로 서게 될 때, 교회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한국 교회 곳곳에서 세워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창세기 11:1~9)



이선규 목사

대림대문화센터 대표
연합교회 담임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한 채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해진 결과, 결국 하나님에 의해 그 계획이 무너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왜 탑을 쌓으려 했는지, 그리고 바벨탑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거대한 탑이 하나님에 의해 좌절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은 분명한 교만이었습니다. 또한 흠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불러온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인간들은 견고한 벽돌을 만들어 하늘에 닿을 정도의 도시와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경건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헛된 야심만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는 모습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욕망과 야심의 발로였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하였고, 결국 그들은 흠어져 탑 쌓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며 삶은 더욱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이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베는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명이 생성되고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21세기의 문명이라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세웠지만, 결국 그것은 허구

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인본주의 문명은 그 속에 이미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언젠가 그것이 자라 인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 약 300년이 지난 시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다시 홍수가 날 것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한 벽돌을 굽고 높은 탑을 쌓으려 한 것은 과학과 인간의 힘을 의지한 행위였으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말은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는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동기는 결국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최초로 뱀이 인간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을 때,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 대적하라고 속삭이며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는 자배욕으로 나타나며, 사람을 친구나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용하거나 지배하려

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인간은 더욱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치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치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고독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서로 문치려 합니다. “흠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을 만들고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국제기구가 등장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모든 모임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것이 바로 흠어짐을 면하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람답지 못한 바벨탑의 건설을 막

으셨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탑을 쌓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웃었고, 동시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의 수고는 헛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벨탑 안에서는 자신의 기술과 능력만 보일 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바벨탑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지요 창조공과 우주의 광대함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바벨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언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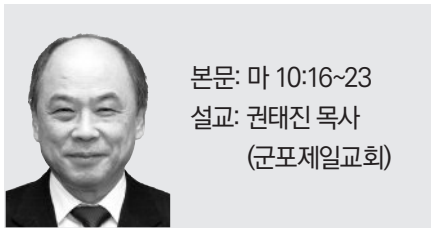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끝까지 견디라



본문: 마 10:16~23
설교: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민여라, 싸워라, 이겨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한 해 동안 세속의 유혹을 이기고 잘 싸워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요8:23)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진리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진리로 세워졌고, 진리로 유지되고, 진리로 회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지식과 가치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1.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10:16)

이라는 양을 해치는 사나운 존재입니다. “이리가 양을 몰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요10:12b)
변장술에 능하고, 지형과 문화를 이용하고, 겉과 속이 반대인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23:5)
이라는 흉고 파괴사키는 존재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10:27)
주인에게 속해 돌봄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니 졸 너희는 알지아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사100:3)
양은 희생과 제물의 상징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
양은 이리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보호가 있으므로 절대로 이리의 발이 되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행동이 깨끗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은혜를 알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뭇잎을 물고 온 새이며, 성령이 임할 때 비

둘기의 형제같이 임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3:21-22)
뱀 같은 지혜만 있고 순수성이 없으면 간교해지고 교만하여 세상 사람과 같고, 반대로 순수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로부터 나오며 순수함은 성령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마10:17)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두고 박해하고 하는 것은 이리같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마10:18)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옮겨 여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농노니”(행5:40)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사도 뿐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권력자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이리에 속했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고 환경과 세상을 이겨가야 합니다.

2.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마10:19)
성령의 사람은 참나의 순간에도 지혜를 발휘해 좋은 말과 행동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한순간에 실수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이시니라”(마10:20)
성령은 창조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영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를 알고 대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것은 지금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모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말과 환경으로, 문화와 삶으로, 인내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법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5:19-22)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마10:21)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는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통해 형제가 된 신령한 가족들과 생사를 같이 합니다.
교회사 속에 ‘선다 상’도 부모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선다 상’은 1889년 인도 판자브 지역의 시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족이 믿는 시크교에 있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세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크리스천이 되자 16살에 추방하고, 음식에 독약을 넣어 먹여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부모, 형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상급과 누람이 있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거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하지만, 교화에 가고, 기도하고, 전도,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고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마10:23)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00대 기업 86.7%, 인사업무에 AI 쓴다… 재직자 42% “취업 준비 때 AI 써 봐”

고용노동부,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재직자 설문조사

국내 상위 500대 기업들의 86.7%가 인공지능(AI)을 채용 등 인사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정한 이용을 위해 연내 ‘채용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달 28일 AI 활용현황에 대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차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396개사 중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식·비공식 포함 86.7%였다.

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AI를 도입한 기업은 163개로, 직원 채용(52.8%) 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훈련(45.4%), 인사 관련 문의 응대(45.4%) 순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직원 채용에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86개(21.7%)였다.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69.8%)’, ‘지원 서류 검토(46.5%)’, ‘AI 면접 및 대면 면접 시 결과 활용(46.5%)’ 등에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구직자에게 ‘AI 도구의 활용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67.0%)’, ‘AI 도구를 활용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관리 방법 안내(55.8%)’ 등을 하고 있었다.

향후 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확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295개사(74.5%)로 나타났다. 주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67.5%)’, ‘지원서류 검토(63.4%)’, ‘채용 절차 관리(55.6%)’ 등에 AI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34.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채용 전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31.5%)’,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14.2%)’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반면 도입·확대 계획이 없는 101개사(25.5%)는 ‘AI도구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36.6%)’라고 답했다. 또 ‘최종 결정에는 사람이 개입해야 하므로 중복적인 업무가 돼서(19.8%)’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청년 재직자의 경우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년은 42.3%였다. 주로 자기소개서이력서 등 작성(77.2%)에 가장 많이 활용했다. 면접준비나 기업 정보 탐색에 사용했다는 응답도 각각 36.4%, 31.0%였다. AI 도구를 활용한 이유는 ‘취업준비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8.7%)’, ‘면접 시뮬레이션 등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22.0%)’ 등이었는데, 응답자의 86.6%가 AI 활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청년 재직자 61.8%는 업무 수행 시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IT(87.7%) 및 마케팅·홍보(87.0%) 직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연구개발(79.5%), 영업·영업관리(68.0%), 경영

지원(58.6%) 순이었다.

이들이 AI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는 ‘자료조사 및 아이디어 도출(63.6%)’, ‘문서 작성(58.1%)’, ‘데이터 분석 및 수치 계산(35.4%)’ 등이었다.

청년 재직자들은 AI 도구의 사용이 ‘업무 처리 속도 향상(56.2%)’과 ‘결과물의 질 향상(24.5%)’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63.8%가 기업이 AI 채용 전형 운영에 대해 찬성했고, 23.7%는 취업 과정 중 AI 채용 전형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AI 판단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26.9%)’, ‘AI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23.1%)’, ‘자기 표현의 왜곡에 대한 불안감(18.4%)’ 등을 걱정했다. 구직

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47.1%)’, ‘AI 평가의 편향성 검증(42.3%)’, ‘AI 도구로 평가되는 평가요소에 대한 사전고지(4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시 윤리 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채용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AI 채용과정에서의 사전 고지 및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채용절차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42개 고용센터에 AI 면접실을 설치해 청년들이 언제든 AI 면접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AI 기초 이해’부터 ‘직무활용’, ‘개발 역량’까지 단계별·수준별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단은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망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뚜렷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INCS평생교육원)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건.
- 5.토지: 2,756m²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³³

「바른예수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철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절대 이치」의 신분으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담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오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는 지도자는 「남을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면서, 스스로 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목숨까지 버리면서라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를 섬기러 왔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동시에 몸의 지체인 「교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요, 또한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하고, 교인들을 상전 노릇을 해도 아니 됩니다. 스스로 교인들을 상전인 자들은, 예수는 「삼군」이라고 칭했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섬기는 강도나 절도라고 언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을 지칭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들이 없을까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고, 교회와 교인들을 이용하여 세속적 출세를 마냥 즐기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떠벌입니다. 그러면서 작은교회나 가난한 목회자들, 못사는 교인들, 병약한 자들, 실패한 거듭나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장애인들 등에 대해서는 「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황당한 궤변을 내뱉기도 합니다. 과거 타계한 서울의 한 중형교회의 목사는 「동남아 해변에서 쓰나미로 20만 명 이상이 죽은 건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교했고, 「섬일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다음 주에 계속)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성원계좌 :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 010-8913-7777
· 한샘교회 :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빠른구매

60개 언어 번역

AI VOCAPEN
국내 최초 생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존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군가 소중하게 여겨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소중해 보입니다. 따라서 참성도라면 누구나 다 주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이 소중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구세주 때문에 그분이 입고 계신 의복마저 향기로우 그 옷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듯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肉桂)의 향기가 있

며”(시 45:8)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발이 밟은 곳 중 어느 한 곳도, 그 복된 입술이 발한 말씀 중 어느 한 말씀도, 그의 사랑스러운 말씀이 계시한 생각 중 어느 한 생각도, 그 어느 한 가지도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가 교회의 남편이라 불리든, 교회의 신랑이라 불리든, 교회의 친구라 불리든, 태초부터 죽을 당한 어린양으로 불리든, 아니면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든, 실로나 임마누엘 또는 기묘자

나 전능하신 모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아무튼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은 다 풀이 방울져 떨어지는 별집처럼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귀에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 이것은 천국에 있는 거문고들을 감동시켜 아름다운 소리를 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는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입니다. 어떤 이름보다도 더 매력적이에요 소중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찬송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 많은 곡들이 바로 이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이름으로 끝맺

지 않는 찬송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이름은 또 모든 기쁨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천국의 뱀을 울리게 하는 음악입니다. 예수라는 한마디 속에 음악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의 물방울처럼 짙은 이름이지만 이 이름 하나를 이해하는 데는 온 대양이 필요합니다. 두 글자로 이루어진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는 비할 데 없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오라토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글자 속에는 영원한 할렐루야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은 제 귀에 음악 소리와도 같습니다.” 찰스 스펔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바이블지식IN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죽음을 분리로 묘사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으로부터의 영혼의 분리이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혼의 분리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a.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온 세상이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창세기 2:17에서, 주님은 아담에게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 죽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는 즉각적인 영적 죽음을 경험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 [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8). 이후에, 아담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5:5).

심자가 위에서, 예수님 또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50). 차이점은 아담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 죽기를 선택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9). 그 후, 예수님은 사흘째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죄를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 요한계시록 1:8). 그리스도 덕분에, 사망은 패배한 적이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전서 15:55, 호세아 13:14).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막을 내리게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구원을 받은 자는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8, 빌립보서 1:23).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진실되어 크리스천의 육체적인 죽음은 “잠” (고린도전서 15:51, 데살로니가전서 5:10)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을]” (요한계시록 21:4) 때를 기대합니다.

갯케스천스 제공

날 새니 함께 하소서 스콜라 철학 (6)

아비뇽

교황 보니파시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은 교권과 왕권을 서로 확충하려다가 큰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때 프랑스가 강해져서 교황이 잠시 불잡힌 일이 있습니다. 교황이 죽은 후 프랑스 추기경들은 프랑스인 교황 클레멘스 5세 (1305년-1314년)를 세워, 교황청을 아비뇽 (Avignon)으로 옮겼습니다. 법왕으로 선출된 클레멘스는 로마로 갈 생각은 않고 교황에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국왕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클레멘스에 의해 결국 고대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에 비유하여, ‘교황청의 바벨론 유수’(1304년-1377년)라고 부르는 기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클레멘스 5세 이후에도 여러 명의 꼭두각시 프랑스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클레멘스의 뒤를 이은 6대에 걸친 법왕은 모두 프랑스 출신으로서 로마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뇽이 법왕의 성지를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던 아비뇽은 이윽고 인구 8만의 변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방대한 수의 성직자 관료 기구가 만들어지고, 극도로 사치스러운 교황청이 세워졌습니다. 아비뇽의 법왕들이 숨쉴 틈을 보인 장기는 재정면과 행정면이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의 지도력은 빈약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어 가서, 프랑스 추기경들은 다시 이탈리아인 교황을 세우고, 그를 우르반(Urban) 6세라 하였습니다(1378년). 그러나 우르반 6세는 자기를 뽑아 준 프랑스 추기경들을 공공연히 비난하므로,

프랑스 추기경들은 다시 아비뇽으로 돌아가서 같은 해에 클레멘스 7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로마와 아비뇽에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회의들
화해주의자들

교회 상황과 대분열 때문에 전체 종교 회의가 공개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 법학자들과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에 이 목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화해주의자라고 지칭합니다. 이들은 특히 교회의 권위가 전 신도 조직체 또는 모임에 주어지며 이 권위는 공동 의회에 의해서 표현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중으로서의 교회와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것을 행사하는 교황 안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간주되는 교회 사이에 구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는 신앙인 전체 조직체 속에 귀속되며 만약에 교황에게 권위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으며 남용 시 철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교회의 위기 때문에 교황의 권한 없이 추기경 또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종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종교 회의가 교황의 그것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회중의 본래 권한의 집행권을 찾으려고 할 때 전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에 교회의 권위는 그에게서 나오고 교회의 신비한 몸의 단일성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단일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교회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단일성을 보호할 수 있고 전체 종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파리 대학장의 제자인 진 데 게르송(Jean de Gerson, 1363년-1429년)은 이 같은 교회의 타락을 회복하는 길은 기독교국 간의 대화의를 열고 그 회의의 권력을 맡기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교황의 독재 정치 대신 일종의 의회 정치를 세우고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격의 회의는 다음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사 회의 (1409년)

피사(Pisa) 회의의 목적은 대분열을 해결하고, 교회 내부를 개혁하며, 이단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종교 회의로서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있던 두 교황을 폐위시키고 새 교황을 세웠으나, 폐위된 두 사람의 교황이 각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결국 세 사람의 자칭 교황이 된 셈입니다.

콘스탄츠 회의(1414년)

콘스탄츠(Constanzt) 회의는 종교적 대분열의 공식적 종식을 가져온 회의입니다. 세 사람의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마르틴(Martin) 5세를 유일한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교회 일치에 효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후스(John Huss), 존 위클리프(John Wicliff) 등을 교회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처형시켰습니다. 교회의 내부를 개혁하는 일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02:26 NIV

They will perish, but you remain;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Like clothing you will change them and they will be discarded.

- perish: 사라지다, 소멸(消滅)되다
- remain: (없어지지 않고) 남다
- wear out: 낡아서 해지다
- garment: 의복(衣服), 옷
- clothing: (특정한 종류의) 옷
- ☞ clothing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 discard: (불필요한 것을) 버리다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권혁승 칼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116)



권혁승 박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가치다. 빛의 본래적 역할은 어두움을 밝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음을 의미한다. 빛은 어두움을 전제로 존

재하기 때문이다.

빛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빛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빛은 천지창조의 본질이기도 하다. 빛 창조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질서가 생겼다. 그런 질서의 제일 마지막 순서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빛은 인간보다 우선할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 유지에 빠질 수 없는 절대적 요소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그 빛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빛에 대한 반사경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의 반사경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우

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반사경이다. 우리는 반사경으로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은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산 위의 동네(도시)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등불(촛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다. 밝은 낮 동안에는 산 위의 도시가 드러나지 않지만, 어두운 밤에는 불빛으로 인하여 그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등불이나 촛불을 켜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함이다. 빛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그 빛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반사시키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반사경의 위치를 제대로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반사경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신앙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과 함께 반사된 빛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 방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세상과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반사경이 지향할 방향은,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마 22:36-40).

둘째는 반사경이 훼손되거나 때가 끼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청결하게 유지해

야 한다. 아무리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여도, 반사경 자체가 잘못되면 빛을 제대로 반사시킬 수가 없다. 늘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볼 수 있다(마 5:8).

자신의 영적 반사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어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살전 5:17; 시 12). 시편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이다”(시 119:9)라고 하였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다. 그것만이 영적 반사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빛의 출처가 하나님이니듯이, 그 빛으로 말미암은 결과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착하다’는 표현 속에는 그것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행실’은 구체적인 행동, 곧 과정의 결과를 강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대로 통과시키는 기계적인 반사경이 아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서 숙성의 과정을 거쳐 우리 자신들의 빛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착한 행실’은 신앙 안에서 성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로서의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갈 5:22-23).

‘착한 행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 성숙시켜 주신 마지막 결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하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김성광 칼럼 **전쟁 공포증**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김성광 목사

를 질병, 가난, 절망과 같은 인생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은 우리를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시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잊고,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만든다. 이때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가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이다. 전진해야 할 때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공포가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다.” 인생을 실패로 물고 가는 모든 두려움을 벗어 버리자. 담대함으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나서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비결이 있다.

첫째, 두려움을 벗어 버려라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개가 누군가를 보고 짖는 것은 그 사람의 두려

움을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짖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슬슬 도망을 간다고 한다. 개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알잡아 보고 짖어 대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겁내면 그것은 더 크고 강해진다. 반대로 우리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인생의 전쟁을 마주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두려움으로는 인생의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두려움이 우리를 더 약하게, 대적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생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도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전쟁에 담대히 맞서라. 그것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있다
우리 군의 패색이 짙어가던 6.25 전쟁, 자칫하다가는 공산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맥아더 장군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그는 낙동강까지 물러있던 연합군을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서울을 수복하여 전쟁의 승기를 잡는데 크게 공헌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한국전의 승리는 미국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칼 힐티(Carl Hilty, 1833-1909)는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복병을 준비해 두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에 놀라게 된다. 그것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인 것이다. 지금 인생의 환란 속에 힘들어 하고 있다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을 만나는 순간임을 기억하라.

셋째, 승리자가 얻는 전리품을 기대하라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국정연설에서 위기에 처한 영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한국을 배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1950년 전쟁을 겪은 한국이 경제가 파탄 났던 당시의 상황에 그저 굴복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라며 한국의 전쟁 극복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크게 성장했다. 영국은 우리의 이런 힘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을 이긴 사람에게는 전리품이 주어진다. 전쟁이 크고 치열할수록 얻을 수 있는 전리품도 크다.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전쟁을 이기고 나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보아야 할 것도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이다. 전쟁 너머에 있는 크고 값진 전리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전쟁을 이겨 내는 비결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는다. 그때마다 두려워한다면 전쟁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 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는 복병

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 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

다한다. 전쟁 공포증에서 벗어나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 한 장



하늘이 선물한 신비의 물질, 일라이트로 피부를 정화시켜주세요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큰얼매모자반”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함유

2년 전통발효한
감발효 원액 함유

비건 VEGAN
인증 소재 함유

천혜의 광물,
일라이트 함유

은혜의샘물 **헌신과 사랑 (3)**

[데살로니가전서 1장 1-4절]

최초의 유럽교회인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곳은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였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아 가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주후 50년경이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 3주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후에는 바울이 두 개의 편지를 쓸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work)'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였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에 따른 기적을 말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을 말한다. '사랑의 수고(labor)'란 노력하는 사랑, 조율하는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 땀 흘리는 사랑을 말한다. '소망의 인내(steadfastness)'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포기하지 않는 소망, 좌절하지 않는 소망을 말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땀과 노동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였다. 이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러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는 '노동'을 의미한다. 노동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수고를 말한다. 땀 흘려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랑의 수고'는 노동이 수반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한다.

노동이 따른 헌신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방법의 사형틀이라고 말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서서히 죽어간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아무 죄 없이 전적으로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 때문에 당한 것이며,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은 그분의 노동이 컸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 모든 어머니들은 커다란 고통과 진한 노동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으면 뿌듯한 희열을 느낀다. 젖을 물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는 노동과 사랑이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이 크면 사랑도 커진다. 노동이 크면 열매도 많아진다. 애써 번 돈은 귀한 법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낭비된다. 마찬가지로 어렵게 일군 사랑은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쉽게 일군 사랑은 쉽게 식어버린다. 고통과 노동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기쁨과 행복의 열매는 산고의 노동이 있는 후에 열린다.

남부 칠레의 늪지에는 리노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 산란기가 되면 이 작은 개구리의 암컷은 젤리에 쌓인 알을 낳는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수컷은 이 알들을 모두 삼켜버린다. 물론 그것을 먹이처럼 완전히 삼키는 것이 아니다. 수컷은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소리주머니 속에 그 알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알들이 소리주머니에서 성숙할 때까지 자신을 희생한다. 자신의 존재 이유며 중요한 쾌락인 우는 것까지도 포기한다. 소리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먹는 것까지 포기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알들이 완전히 성숙하기까지 입을 벌리지 않는다. 알들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리노데르마르는 자신의 입을 벌려 마치 긴 하품을 하듯 새끼 개구리를 입에서 내 보낸다.

이렇게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또는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랑은 죽어 있는 것들에 속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들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도 노동과 수고에 의해서 결실한다. 노동이 크면 사랑도 커진다.

'헌신과 사랑(1)'에서 하나님께서 성육

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사랑을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참여와 협동의 마음에서 또 포기와 동일성에서 찾아보았다. '헌신과 사랑(1)'에 이어서 관심과 기도와 책임과 이해와 존중과 주는 것 등에서 헌신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헌신적인 사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찾을 수 있다. 관심과 배려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관심과 배려가 없는 사랑은 가짜이다.

개화기 때, 6조(六曹)에서의 점심 식사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관서나 참판과 같은 당상관(堂上官)이 맨 처음 먹고 나면 그 상을 물려 정랑(正郞)이나 좌랑(佐郞)과 같은 당하관(堂下官)이 먹고, 다시 그 상이 물려져 아전이 먹고, 아전이 물려 종들이 먹었기 때문에 점심 시간이 그토록 길었다. 이를 '내 물림 상'이라 불렀는데, 위사람들은 상물림을 배려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얼굴이 매말라 수척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를 '양상수척(讓床瘦瘠)'이라고 한다. 사람이 있는 곳에 관심과 배려가 있다.

둘째, 헌신적인 사랑은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간절한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다.

오래전 미국 어느 도시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버려져 있었

다. 그 아기는 소경에다 뇌성소아마비를 앓았고, 정신까지 박약한 아이였다. 우유를 빨아 마실 반사 본능마저 없는 아이였다. 이 아기를 발견한 병원 당국은 당황해하다가 마침 은퇴한 간호원 메이 램케와 이 딱한 사정을 의논하게 되었다. 당시 52세로 신앙심이 깊었던 램케는 사정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 아기를 맡아서 키우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데려왔다. 아기의 이름은 레슬리였다. 그때부터 램케는 아기의 뺨을 자기의 얼굴로 비벼주고, 팔, 다리, 손가락을 마사지해 주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 주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레슬리는 단 한 번의 움직임이나 한마디의 말은 물론 웃음이나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램케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가 스스로 레슬리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아이를 키우도록 선택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언제든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기도라기보다는 항변에 가까운 호소를 하면서 레슬리에게 걸음마를 시켜 보기도 하고 특수 요법으로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램케는 여전히 레슬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신적 감옥

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램케는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기타를 튕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18년 만에 처음 보여준 이 작은 기적 앞에서 램케는 음악을 생각해 냈다. 음악이야말로 레슬리를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는 생각을 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램케는 집안을 온통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레슬리의 손가락을 잡아주며 피아노 연습을 시켰다. 그러나 레슬리는 한 번의 기적으로 만족하라는 듯 더 이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1971년 겨울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다. 곤한 잠에 빠진 가족들은 누군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는 소리에 잠을 깨었다. 순간 램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레슬리의 방으로 달려갔다. 레슬리가 미소를 머금은 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램케는 소리쳤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레슬리의 눈에서도 21년 만에 진주 같은 이슬이 맺혔다.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다. 성량이 풍부했다. 이후 그는 뉴욕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더듬대며 "음악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이 신화를 메이 램케 부인의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고 보도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참된 행복

사람이 4억 4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카우센이라는 독일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서독에만 1만 5천 개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도 25개의 빌딩과 1천 5백 개의 아파트가 그의 것이었으며 애틀랜타 시에는 무려 53개의 빌딩에다 4천 2백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우센의 총 재산은 4억 3천 9백만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재벌이 목을 매어 자살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나 4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망한다고 해도 적어도 백만 달러 정도는 남을 것이고 그 정도의 돈이라면 남은 평생을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욕심이 결국 사망을 부른 것입니다.

세상의 돈, 권세, 명예와 같이 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와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닷컴 제공

교회오빠

내 영혼에 소망되시는 예수님

내 영혼에 소망되시는 예수님
세상이 내미는
달콤한 유혹의 손짓을 멀리하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떠나
죄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죄의 마음을 숨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하지 않게 하소서.

소망이 없는 죄의 모습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영혼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며
선악과를 취하여 주님께 범죄하듯
우리들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동일한 모습아니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평생토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내 영혼에 소망되시는 예수님
주님만이 내 영혼의 길이요
주님만이 내 영혼의 빛이요
주님만이 내 영혼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내 영혼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며 죄지는 나의 영혼
죄와 더불어 타협하며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주님!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죄지는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의 소망되신 예수님만을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최문식 / 창골산 불목사 제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찬양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음악이다. 이 음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 이시며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는 음악이어야 찬양이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음악은 자격 있는 사람만이 부르 고 연주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안에서 음악은 어떤 음악이어야 하며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8절 : 그러므로 우리

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주의 나라를 받은 자, 주의 자녀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말씀의 기쁨이 있고, 생활 속에서 예배할 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경건함으로 살 때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는 우리의 성화(경건한 삶)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존경과 떨리는 마음으로 음악을 하

고 찬양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들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나.

찬양에 경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는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찬양은 밖으로

주위의 일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힘을 가진다. 그리고 안으로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 물들지 않을 때 찬양의 경건함을 지킨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좋게하는 것이 하나

님을 기쁘시게 한다.

누구를 좋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목적을 바로 이루어야 한다.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과 그를 향하여 기쁨을 찾아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이루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지니라.

찬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와 같이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찬양의 동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수함을 가지고 신령한 집을 이루어야 하며 찬양하는 자는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아낌없이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출처 : 다음카페 만나와 메추라기

예배자를 위한 두려움(2)



〈흠모(나바트)와 활기(나하르)〉

흠모와 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바트와 나하르는 노래가사의 시적 발음이 눈부시게 살아 화려한 광채를 띠고 있다. 잠시 전에 있었던 어떤 수치와 당황과 모욕과 혼란은 전혀 사라지고 오히려 영원한 평강으로 가득차 빛나고 있다. 그 어떤 비난과 어둠과 나쁜 두려움은 온데 간데 없다.

큰 두려움, 오직 그들의 얼굴과 몸은 알 수 없는 충만으로 눈부신 내적 열기인 화열과 외적 열기인 광채로 큰 두려움으로 가득채워져 있다 한다.

흠모와 활기(광채)가 지시하는 고조된 상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나바트 나하르 단어의 원석이 가진 감수성은 큰 두려움이다.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현재적 잠재다.

흠모는 자신의 내면으로 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존경인 두려움이요 광채는 하나님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두 두려움이 만나 큰 두려움이 일어난다.

(두려움의 결핍)

어떻게 큰 두려움이 모자라 나쁜 두려움으로 가득차게 되는가?

인간은 본디 그 존재 형편이 완전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기에 결핍과 그 결핍에 대한 소외의식에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드는 어리석은 형편 행동을 한다. 결핍은 밖에서 타자가 채워지 않으시면 자신 안에 결핍에서 오는 소음적 두려움으로 채우려 한다. 두려움은 원래 혼수상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일, 교회에서 찬양한 녹음을 월요일 편집하는 녹취원에는 두 종류의 사운드가 존재한다. 하나는 주 사

운드이고 다른 하나는 소음이다. 편집 활동의 대부분은 주 사운드를 더 잘 드러나게 하고 소음은 지우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어떤 때는 주 사운드가 들리지 않아 볼륨을 키우면 소음만 크게 들린다. 이 때 주 사운드 없는 소음만의 세계에 잠시 있게 된다. 그 세계는 아주 불편하고 가혹하게 처참하다. 이런 사운드는 곧 지워진다. 우리 영혼에 두 종류의 사운드가 있다. 오직 바로 그 하나님인 신 주 사운드가 작동하지 않으면 보잘 것 없는 주변 소음만이 드러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소음이라도 크게 들으려 한다. 그게 대체로 시정에 보이는 인간이다.

형편에 의해 자신을 유지하는 존재인 인간은 큰 두려움이 작동하지 않으면 소음인 주변적 두려움이 그 공간을 채우며 들어온 소음이 마치 주 사운드인줄 안다. 비어있는 곳에 쓰레기만 잔뜩 채워진 공허가 자신의 처자인줄 알며 마치 그런 형편에 자신이 처한 것을 운명으로 생각한다.

(형편 주머니)

비어있는 존재 형편 주머니를 소음으로 채우는 자와 흠모와 광채로 채우는 자가 있다. 큰 두려움을 지닌 인생은 얼마나 볼륨이 있는가? 큰 두려움이 없는 존재 형편은 소음만이 지배하는 행과리 환경에 속고 살고 있다. 꿈은 큰 두려움

에서 오는 것이요, 주시는 자의 광채가 멈추지 않는 충만에서 온다. 아무 것도 없는데 큰 두려움과 광채와 충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망과 기다림과 고난과 격정적인 내적 분규가 고조되고 치열해질 때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

성서는 갑급한 영혼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가신다고 보고한다. 큰 두려움에는 모든 것이 평정된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보나(나바트) 주의 개입하심과 내 근거리에 나를 주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목격하고 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덮쳐온다(나하르).

말할 것도 없이 찬양하는 자는 소음 같은 무서움이 아니라 큰 두려움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인 두려움은 그 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분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미련이 많이 그렇다. 오직 그 분만이 작동하려면 그 분 외에는 세상 순위를 뒤로 보내야 한다. 찬양자의 선택은 오직 두려움만이 그가 선택하고 찬양하는 그 현재에 가장 큰 아티클레이션이어야 한다. 지휘자에게 두려움이란 그 크신 분을 감히 알고 누리려는 영적 감수성이다. 오토가 만난 누미노제는 시골 시나고그의 할딱이는 초라한 목상 소리였다. 하나님은 흠모하는이에게 광채로 찾아 가신다.

◆이선종 지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VKCC 지휘자/성서 번역가

가나 혼인 잔치 속에 보이는 예배의 비밀들 1



조성환 목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 잔치를 귀히 여기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예배에 대한 교훈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임태하기 전에 이미 천사장의 예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라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라고 종들에게 부탁한다. 왜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요 2:5)

첫째로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은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즉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말이다.

시편 1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로부터”라고 고백한다. 즉 끊임없이 눈을 드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알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것이다. 어려움만 목상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능력을 목상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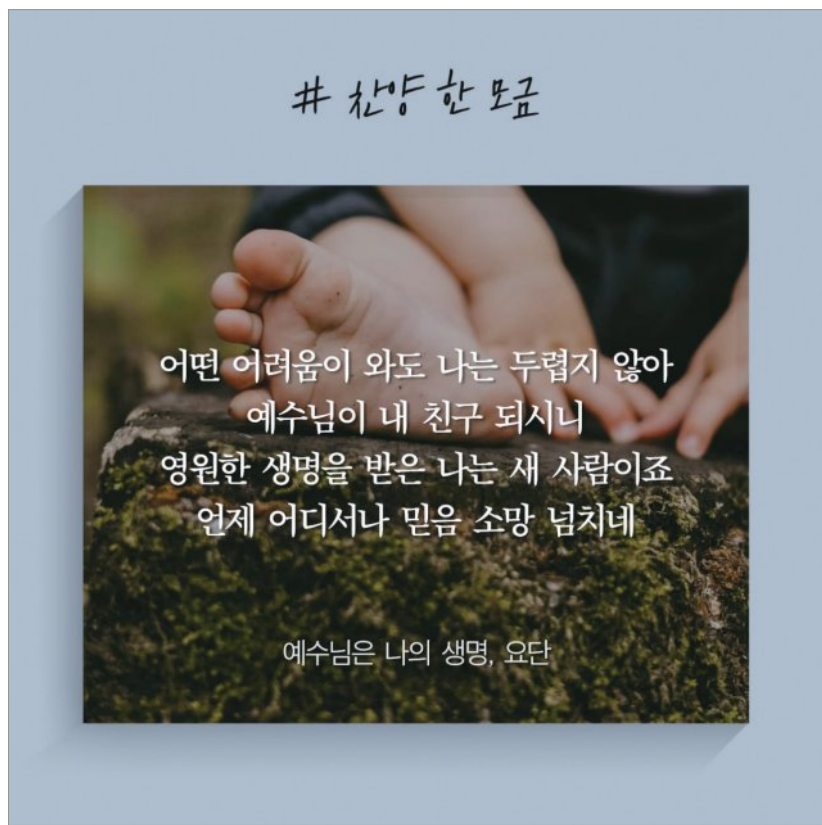
둘째로, 주님의 시간을 우리 시간에 맞추려 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은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셨다(한국어 성경은 그대로 읽으면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문은 여

인을 높여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에 곧 주님의 일을 하셨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뤄지기를 바라며 안절부절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주님의 눈동자만을 바

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시간에 이뤄지도록 찬양하고 예배한다. 주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기에 예배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의 시간에(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 **조성환 목사**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CTS, 창사 30주년 맞아 특집 다큐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 방송

영상 선교 30년 역사와 도전, 기적의 순간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아프리카 교육선교와 CTS의 비전도 소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12월 1일 오전 9시 10분에 특집 다큐멘터리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를 방송한다. 이번 특집은 CTS가 걸어온 30년간의 영상 선교 역사를 담아내며, 감경철 회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동안의 도전, 위기, 기적의 순간들을 조명한다.

다큐멘터리는 CTS가 직면했던 어려운 시절을 최초로 공개하며, 부도와 강제퇴거, 400억 원에 달하는 채무 문제, 사옥 건축 과정에서 겪은 고난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깜아 시절'을 심도 깊게 다룬다. 또한,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해온 CTS의 사역도 함께 소개된다. 1교회 1학교 운동, 저출산대책국민운동본부 발족, 교회형 돌봄센터 임업청원 등 CTS의 사회적 기여와 섬김의 발자취도 조명된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최근 진행된 아프리카 교육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담고 있다. CTS는 탄자니아의 UAUT(University of Africa Tanzania)



CTS 창사 30주년 기념 특집 다큐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의 한 장면(왼쪽부터 방송인 최선규 집사, CTS 감경철 회장) ©CTS

를 인수하고 재건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감경철 회장은 이를 “아프리카 선교 허브이자 한국교회가 세워갈 100년의 미래”라고 전했다.

CTS는 ‘서른 살의 예수처럼’을 슬로건으로, 순수 복음 방송과 섬김, 나눔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한편 CTS는 오는 12월 1일 10시 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창사 3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진행하며 새로운 3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한다. 예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02-6333-1178 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10대가 직접 만든 ‘2025 위틴즈페스티벌’ 성료

청소년 기획단 주도… 놀이·공연·신앙·커뮤니티 결합한 축제의 장
청소년 관점 담은 축제 기획... “우리가 직접 만든 자리”
사이퍼존부터 버스킹까지 ‘도시형 청소년 문화축제’ 추구

청소년 문화사역단체 지저스무브먼트(대표 박래성 목사)는 최근 경기 부천시 북부역 마루광장에서 ‘2025 위틴즈페스티벌(WETEENS FESTIVAL)’을 개최했다. 올해는 ‘FREEDOM! (Know Jesus, Get Freedom)’을 주제로,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이 주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틴즈페스티벌 운영위원회는 이번 축제가 말라기 4장 6절을 토대로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미디어로 이루어진 놀이 문화로 패배해져 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연체험운영 전 과정에 청소년 기획단이 참여해, 10대의 관점과 표현 방식을 행사에 적극 반영했다.

현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만든 체험부스 공간인 ‘P.P(Play Place)’다. 총 10개의 놀이부스가 운영됐으며, 방문객들은 학생들이 직접 고안한 놀이핸드메이드·미션형 콘텐츠 등을 체험했다. 구체적으로, 공 차기와 탁탁도 게임을 결합한 놀이, 미로체험, 페이스페인팅, 다트게임 등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공연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 참여 비중이 높았다. 춤랩노래 등 청소년 문화 기반의 공연 무대가 이어졌으며, 비보이 쇼리포스, 래퍼 포디퍼(Podifer), 낙락더피(Nagg Rock the P), 가수 아우라 등이 출연해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즉석에서 진행된 버스킹존과 사이퍼존에는 시민과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모여들며 세대 간 소통이 이뤄졌다.

아울러 아름다운파켓, 한국YFC, 동방박사, 오피 등 청소년·신앙 관련 기관도 부스를 운영해 사회적인양적 가치를 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행사 기획을 맡은 박미나 전도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함께 헌신해 행사가 잘 마무리됐다”며 “외부 유명팀 없이도 자체 기획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위틴즈 페스티벌은 2019년 홀리워크와 전문예술인들이 함께 새로운 놀이 문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어, 다음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는 축제이다. 백선영 기자



2025 위틴즈페스티벌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한 학생의 수상 모습. (왼쪽부터 MC 김미라(Sarah), 수상자 Cathy, 지저스무브먼트 대표 박래성 목사) ©위틴즈페스티벌 인스타그램



학생 기획자들이 마련한 체험부스에서 한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위틴즈페스티벌 인스타그램



위틴즈페스티벌 메인 무대에서 워십밴드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위틴즈페스티벌 인스타그램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새중앙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사신(335회) 율법과 복음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46회) 30 TV강단 삼일(송태근)	10 강연소 통(38회) 대인관계에서의 자존감과 수치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이경은(진주초대) -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16-18) 30 생명의 말씀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사애헤형제(권준)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637회) 5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자막)(2회)	00 생명의 양식 대환(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360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7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4회)
	7:00	00 CTS뉴스W(28회) 20 생명의 말씀 대구동부·박성순, 비난을 잘 극복합시다 50 생명의 말씀 필그림-김형석,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회개의 길	20 행복한 쉼터 이리신광(권오국) 50 행복한 쉼터 소영중앙(김대성)	30 휴먼네컷(49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03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79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상황 송병렬 목사
	8:00	20 내가 매일 기쁘게(3447회) 하나님의 사랑꾼, 가수 원혁	2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30 행복한 쉼터 삼천포 삼한(하태경)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20회)	00 하나님의 음성(96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93회) 고린도전서 14장	00 고평역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트(31회) 독림을 받침니다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9:00	10 CTS 창사 30주년 특집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	00 사랑의 메시지 에버그린(김학필)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이제일)	00 [말씀] 반태효 목사(방주교회)(93회) 40 Q&A 107 소요리문답(56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17회)	10 새롭게하소서(11370회) 손성락 전도사	0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62회)
	10:00	40 CTS 창사 30주년 특집 한국교회를 논하다(564회) 한국교회와 함께, 100년을 향하여	00 사론의 꽃 필 때	20 THE NEW 하늘빛항기(7회)	00 파워인터뷰(205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1:00	(편성 없음)	00 비전설교 가나안(장경덕) 30 비전설교 베이직(조정민)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231회) 50 예수동행일기(1회)	20 세상을 보는 창(286회) 50 만나다(4회)	00 성지가 좋다 국내편(44회) 경기도 수원 2부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41회)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일호 목사
오후	12: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창세기 9장	00 사랑의 메시지 백승(이순화)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꿈(신용대)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2회) 2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07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린시티(조성익)	20 성경 속 전쟁사(17회) 죄와 전쟁,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역사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
	13:00	00 수영련의 시간 이규현 - 온전한 치유의 길, 감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장 3분 미라클(261회) 복음의 진수	00 행복한 쉼터 임마누엘(전담양) 30 행복한 쉼터 종일(박상현)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36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1회)	00 울포원(688회)	3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 50 원더풀우먼(5회) 우리 부부 사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43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무엘) 30 CBS 아카데미 숲(181회)	00 새에덴 강단 소강석 목사
	15:00	4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균	00 [말씀] 류용렬 목사(와성통증양장로교회)(285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392회) 민수기 11장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00 오해숙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안병찬)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70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2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11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강화(32회) 50 맞나는 교회(16회)	00 내 삶의 행복(184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더워십(The Worship) 김성권(부산대양교회) 50 신앙예배이 박연식 목사(울산순수교회)	0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쉼터 영광의(조이엘)	30 2023 KGMVF(5회)	50 영혼의 양식 산위의마름(김영준)	00 강연소 통(38회) 대인관계에서의 자존감과 수치심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덕천-김경년,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30 CTS 창사 30주년 특집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	10 우리들의 지식살롱(12세) 40 더 깊은 울림 헤세드 워십	10 레디온(161회)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1회)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종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저녁	19:00	(편성 없음)	00 사랑의 메시지 우리들(강양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4회)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수(주학선)	0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30 복음강단 창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영덕성동교회 10 신앙예배이 박근상 목사(신석장로교회) - 하나님의 부르심 20 더워십(The Worship) 강주성(광주서석교회)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비전설교 혜성(정영호) 40 김진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특독 5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6회)	00 TV강단 순복음원당(고경환) 50 크리스찬칼럼, 중앙성경(한기재)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 마음의 치유와 회복 30 말씀노트: 말씀한장(1회) 시편 42편 50 CTS뉴스	40 GOODTV NEWS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뉴저지온누리교회-(4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93회) 고린도전서 14장 50 잘 믿고 잘 사는 법(40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53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창세기 9장	00 2025 다니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교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2회) 50 예수동행일기(1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370회) 손성락 전도사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4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87회) 주운석 목사 두 번째 9장 인생 후반전의 믿음 - 불확실한 인생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1회)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사도바울의 흔적을 찾아서	3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10 쟈슨 프랭클린의 부흥(501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2회)	10 더 콜링(138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32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79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리바이즈 워십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386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One day 그 날에	00 힐링스토리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5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회)(253회)	10 2024 한소말교회 감사 부흥회(11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84회)	00 새에덴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말씀대로 살라 김선교 선교사 40 내가 매일 기쁘게(3422회)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님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13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538회)	00 CBS 아카데미 숲(181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03회)	00 만나 U(6회)
	2:00	30 사인사색(4914세) 철조망을 꿰어라 - 정성진 은퇴목사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교회)(399회)	30 TV강단 시온(박성준)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최병락 목사, 창세기 9장 50 힐링스토리(64회) 성리 박사	00 GOODTV 특별강준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217회) 3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382회)	00 맞나는 교회(16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육한홍 목사 30 네 영혼의 찬양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85회) 출애굽기 36장 50 CBS 교회소식(1027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회) 이정익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43회)

SAMSUNG

Smart LED signage
for Building바로 지금
랜드마크가 되는 빌딩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코엑스 K팝 스퀘어,
신세계백화점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삼성의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연속 세계판매1위를 기록해온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이니지

빌딩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삼성전자의 글로벌 노하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삼성닷컴 비즈니스 견적문의



* 디스트릭트의 퍼블릭 미디어아트 작품이 사용되었습니다.



* 프리미엄 미디어아트 플랫폼 LED.ART의 작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고품질 LED

플리커와 모아레를
최소화한 AI 프로세싱,
HDR10+ 기술

※ 플리커(Flicker): 디스플레이 화면이
빠르게 깜빡이는 현상

※ 모아레(Moire):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발생하는 줄무늬 패턴

원격 제어 솔루션
적용 (별도 구매)

원격으로 제품 컨트롤이나
상태 모니터링 가능
원격 콘텐츠 배포 가능

※ 지원 기능은 모델별 상이